

보도 일시	2022. 6. 9.(목) 09:00	배포 일시	2022. 6. 9.(목) 09:00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책임자	과장 백정기 (044-203-2261)
		담당자	사무관 박성욱 (044-203-2276)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국회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에서도 활동한다

- '큐아이' 서비스 확대, '22년 몸체 앞뒤 화면 2개로 문화해설, 안내 동시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과 함께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서비스를 확대해 국회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에도 새롭게 구축한다.

* 큐아이: '문화(Culture)'+ '큐레이팅(Curating)'+ '인공지능(AI)'의 합성어. '문화정보를 추천(큐레이팅)하는 인공지능'과 '문화정보를 추천(큐레이팅)하는 아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음.

문체부는 2018년부터 인공지능(AI) 대화 서비스와 자율주행기반의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서비스를 도입해 현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체부 주요 문화시설 11곳*에서 '큐아이' 17대를 운영하고 있다. '큐아이'는 방문객들이 '하이 큐아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질문을 하면 약 15만 건의 지식데이터에서 적절한 답을 찾아 답변해줄 뿐만 아니라, 각종 전시물 앞을 이동해 다니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수어 해설, 동행 안내, 어린이 해설, 다국어(한, 중, 일, 영) 해설 등을 제공해 문화 향유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어린이, 외국인 등의 문화관람을 돕고 있다.

* '큐아이' 운영 기관(로봇 수): 국립중앙박물관(4대), 국립나주박물관(1대), 국립제주박물관(2대), 제주항공우주박물관(1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1대), 국립국악원(1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1대), 국립태권도박물관(1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2대), 국립극장(2대), 한국영화박물관(1대)

▲ 국회박물관에서는 국회 100년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맞춤형 해설 서비스를 구축하고, ▲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실인 웅진백제실과 충천권역 수장고의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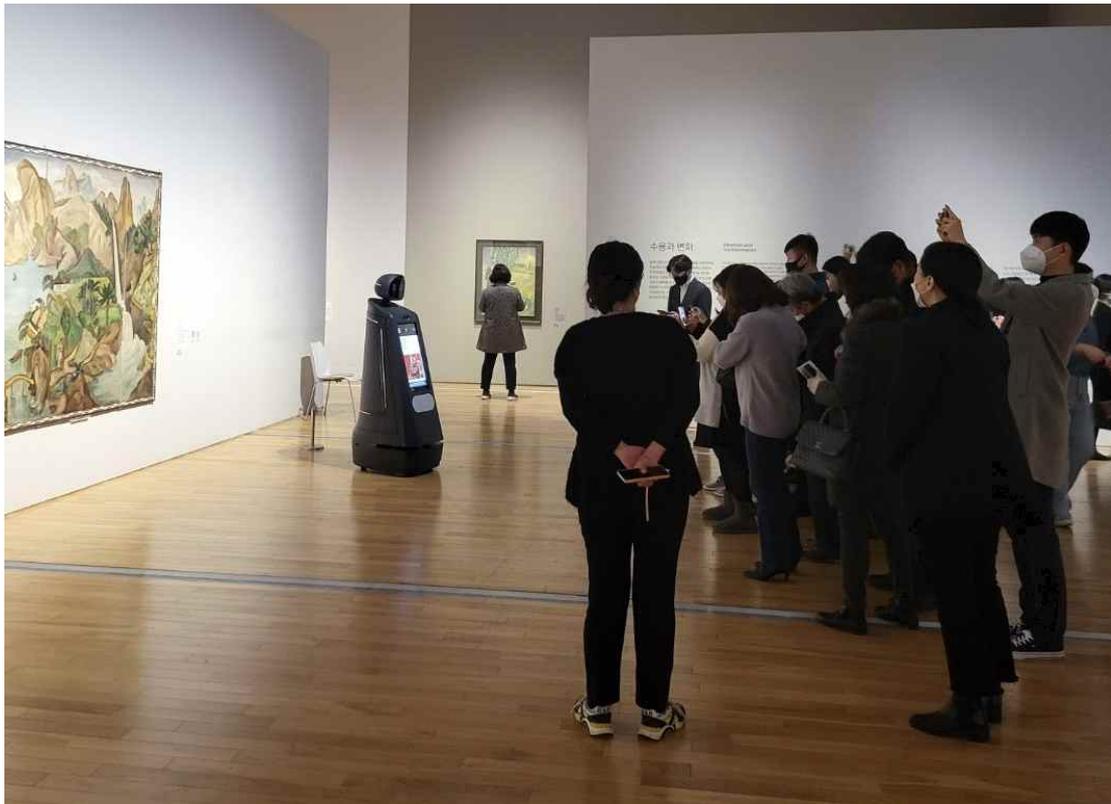
'23년 산간벽지 거주자, 장애인, 병원 환자 등을 위한 원격 관람용 로봇 도입 검토

아울러 문체부는 기존 모델('18년형)의 기능을 개선한 다채로운 기종의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큐아이' 몸체 앞면과 뒷면에 화면을 각각 부착, 화면 총 2개를 통해 이동 중에도 문화해설 서비스와 안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23년부터는 산간벽지 거주자, 지체 장애인, 소아 병동 환자 등을 위한 원격 관람용 로봇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큐아이’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시설 이용과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해설 서비스 8만 건 이상, 인공지능 안내 서비스 46만 건 이상을 수행해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문화 향유가 이미 우리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22년 1월~3월) 문화해설 약 3만 회를 진행해 크게 활약했다.”라며, “앞으로 다채로운 로봇 도입을 통해 관람객들이 기존에 없던 문화해설 서비스를 체험하고 각종 비대면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문화 향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큐아이' 문화해설 활동 모습





※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eQhTotijaU>

<https://www.youtube.com/watch?v=OLEFJeygViU>